창작강좌가 열리는 '예술서' 공간

문학과 예술의 즐거운 만남
'예술서가' 문화 사랑방

지난 4월 20일 문학과 미술, 공연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예술서가'가 신사동 강남출판문화회관에 그 둥지를 틀었다. '예술서가'는 다양한 예술장르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학운동을 꿈꾸는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곳이다. 소설가 이평재씨가 대표를 맡아 지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공간을 마련했다. 오랜 시간 이런 공간을 꿈꾸어 왔다는 이 대표는 "장르,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다양한 문화예술간의 접점을 찾아 대중과 폭넓게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술서가의 대표인 소설가 이평재씨(사진 위)와 출입문의 강렬한 붉은 색에서 열정이 느껴지는 예술서가의 입구(사진 아래).

개원일에는 오픈 기념 공연으로 '오프닝&여섯빛깔의 몹시 즐거운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평재 대표와 작가 지망생들, 소설가 한강, 시인 김정묘, 아동문학가 임정진, 시나리오작가 조재홍, 이남진 등이 함께 참여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미술, 무용, 판소리, 음악, 문학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날 퍼포먼스는 예술서가의 지향성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

예술서가는 소규모 연극이나 공연, 세미나, 미술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예술가' 공간과 작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강좌를 운영하는 '예술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표는 '예술가' 공간을 통해 전시회, 출판기념회, 퍼포먼스, 문학의 밤,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선보여 본격적인 '살롱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실력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초청, 무명의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생각도 있다. 그는, "유럽 등 외국에서는 살롱을 중심으로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창작 문화를 풍성하게 일궈가는 전통이 살아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장(場)이 없어서 늘 아쉬웠다"며, "예술서가가 '문화 사랑방'으로서 잘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간 '예술서'에서는 소설, 시나리오, 동화 등의 창작 강좌를 마련, 작가를 지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문학 수업을 진행한다. 각 분야의 작가들이 독립적인 강좌를 진행하되 한달에 한 번은 모든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통합 강좌를 열 예정이다. 여러 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확장된 글쓰기의 체험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음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예술서가는 홈페이지(www.seogaus.com)도 함께 열어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게시판과 까페 등을 통해 작가들과 대중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 중 장애인을 위한 무료 온라인 소설 창작 강좌 '다정한 포옹'은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학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개설한 것이다.

이평재 대표는 예술서가를 통해 "진정한 아티스트와 실력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개하고 우리 문화예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술서가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작가,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이 이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_ 김지희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